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소비자들,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'무덤덤'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CME 서비스 중단으로 금융시장 혼란
- YahooFinance: 월가의 2026년 예측...S&P 500 최대 8,000까지 간다

[미 이민 정책]

- Bloomberg: 트럼프, 단속 추진 위해 '역이민' 요구

[글로벌 무역]

- Bloomberg: WTO, '물량 선점 효과 사라지며 세계 무역 둔화'

[오일]

- YahooFinance: 월가, '과잉 공급'으로 2026년 유가 하락 예상

[인공지능]

- WSJ: AI 도입, '느리고 불균형'...리더십 교육 필수적
- CNBC: AI 쇼핑, 블랙 프라이데이에 리스크 커져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Shoppers Are Underwhelmed by Deals and Crowds on Black Friday

소비자들,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'무덤덤'

- 미국 소비자들이 고용 시장 침체, 지속적인 인플레 등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했다.
- 애널리스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체 판매량이 최대 2.5%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, 이는 사람들이 저렴한 물건을 사는 데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는 분석이다.
- 일부 쇼핑객들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아닌 필수품을 사기 위해 이 할인 시즌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11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.
- 한편, 관세로 인해 일부 브랜드에서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, 9월 소매 판매 증가세는 11월 들어 둔화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Frustration, Confusion Ripple Across Markets on CME Outage CME 서비스 중단으로 금융시장 혼란

- 시카고 소재의 세계 최대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의 데이터 센터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.
- 이 같은 사태가 게시된 지 9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서비스가 재가동되기 시작했으며, 현재는 복구된 상태이다.
-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선물 및 옵션, 국채부터 미국 원유까지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는데, 이로 인해 수조 달러 규모의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.
- 일부 시장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낮아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.
- 반면,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오히려 일부 트레이더들은 더 큰 부담이 생겨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YahooFinance: Wall Street's 2026 forecasts are rolling in — and some see the S&P 500 hitting 8,000 월가의 2026년 예측...S&P 500 최대 8,000까지 간다

-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6년 주식 시장에 대해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다. 그 중 AI 붐이 경제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S&P500이 8,000 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.
- Deustche Bank는 “2026년에는 견고한 수익 성장과 높은 주식 가치가 유지될 것”이라고 예측했다. 지금까지의 견조한 실적과 강력한 자금 유입 흐름이 수익률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.
- HSBC는 2026년 S&P500 목표치를 7,500으로 예측했으며, JP모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S&P500이 7,500까지 상승하고 8,000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.
-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Mike Wilson은 이에 대해 “새로운 강세장의 시작”이라고 평가하며 ”경기 침체는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 수익 강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러나 JP모건은 AI 붐이 양극화된 경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, 이러한 수익 강세가 이어질 시 AI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[미 이민정책]

Bloomberg: Trump Demands ‘Reverse Migration’ in Push for Sweeping Crackdown

트럼프, 단속 추진 위해 ‘역이민’ 요구

-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당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‘역이민’을 촉구하고 이민에 대한 추가 단속을 설명했다.
- 그는 일부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중단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으며,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.
-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 방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, ‘제 3 세계 국가’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- 이에 대해 목요일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책임자 Joseph Edlow는 “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착한 모든 난민의 사례를 검토할 것이며,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그린카드를 엄격하게 재검토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[글로벌 무역]

Bloomberg: Global Goods Trade Slows as Tariff Frontrunning Ends, WTO Says

WTO, ‘물량 선점 효과 사라지며 세계 무역 둔화’

-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, 올해 초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앞당겨 늘렸던 주문량이 소진되면서 지난 분기 글로벌 상품 거래가 둔화하였다.
- 상품 거래량을 나타내는 WTO의 상품 지표가 6월 102.2에서 9월 101.8로 하락했으며, 기준치 100에 가까운 수치는 향후에도 성장세가 현재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한다.
- 항공화물 및 컨테이너 해운 수송 관련 지표는 6월부터 약세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, 자동차 및 전자 제품 관련 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
- WTO는 10월에 올해 세계 무역량 성장률을 2.4%로 예상했는데, 이는 2024년에 예상했던 2.8%보다는 둔화한 수치이다. 그러나 특히 2026년에는 세계 무역 증가율이 0.5%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오일]

YahooFinance: Oil prices expected to fall in 2026 as Wall Street sees 'punishing oversupply' risking return to COVID levels

월가, ‘과잉 공급’으로 2026년 유가 하락 예상

- 월가 최고 투자은행의 상품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과 2027년이 석유 산업에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올해 유가는 거의 20% 하락했으나, 이와 같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.
- JP모건은 2026년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58달러까지,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53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골드만삭스 또한 내년 브렌트유는 배럴당 65달러,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52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, 이들은 과잉 공급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조

- 건 하에 2028년까지 가격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.
- 수요는 예상보다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, 전 세계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미국 셰일 생산업체들은 12월에 사상 최고 생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공급 과잉이 심화되어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OPEC+의 정책 또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.

WSJ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AI Adoption Among Workers Is Slow and Uneven. Bosses Can Speed It Up.

AI 도입, ‘느리고 불균형’...리더십 교육 필수적

- 최근 연구에 따르면, 많은 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모두가 AI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. 이는, AI를 도입하는 기업들 중 조직 전체가 동시에 변화하는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.
- 컨설팅 스타트업 Workhelix는 최근 직원 5만 명 이상의 한 제약 회사를 분석했는데, 이 회사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원은 인턴과 R&D 과학자들이었다.
- 회사에서 가장 전문성을 띠고 많은 경험을 가진 직원들은 AI 활용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, 이러한 부분적인 도입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.
- McKinsey 또한 10년간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AI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, 이 기업들 중 대다수는 아직 AI 시험 단계에 있으며 AI를 업무 전반에 통합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은 20개 중 1개에 불과했다.
- 이는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, 이러한 기술을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.
- 실제로 IT 분석 플랫폼 LogicMonitor의 경영진은 최근 AI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회사 전체가 AI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데, 직원들 중 96%가 AI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1,600개 이상의 맞춤형 챗봇을 개발했다.
-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직장에서 AI 도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. AI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, AI를 활용할 줄 아는 다른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데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CNBC: AI Shopping comes with its own perils this Black Friday AI 쇼핑, 블랙 프라이데이에 리스크 커져

-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소비자와 소매업체 모두 AI 에이전트 쇼핑의 위험성이 불거지고 있다.
- 신원 정보 회사 Forter의 CEO Michael Reitblat은 “에이전트 쇼핑으로 인해 사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”고 전한 바 있다.

- 지난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의 AI 에이전트를 통한 대리구매는 200% 증가했는데, 이와 동시에 AI를 이용한 대리구매 사기도 거의 10배 증가한 것이다.
- 일부 소매업체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구매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으나, AI가 쇼핑객들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잘못된 전략일 수 있다.
- Reitblat은 이와 관련해 “이러한 대리구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”고 전했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